

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P.O. Box 516
St. Louis, MO 63166
www.boeing.com



슬램-ER (SLAM ER)

소개 및 용도:

슬램-ER (원거리 지상 공격 미사일, Standoff Land Attack Missile Expanded Response, SLAM-ER)은 미 해군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상목표와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초정밀 타격작전용으로 선호하는 미사일이다. 초정밀 맨인더룹 (man-in-the-loop) 방식의 슬램-ER 은 150 해리 밖의 원거리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하푼 대함 미사일의 파생형인 슬램(SLAM) 기본형에 미 해군을 위한 저 비용 업그레이드 버전인 슬램-ER 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되었다. 사정거리와 공기역학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면날개를 추가했으며, 단단한 목표물을 대상으로 관통력과 파괴력 증대를 위해 개량 탄두를 도입했고, 발사항공기에서 더욱 용이하게 표적 조준포인트를 추적 설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향상했다 .

슬램-ER 은 발사 후 목표물 재설정 가능한 최초의 미사일이다. 유연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며, 작전기는 조종석 디스플레이 상에 미사일에서 전송되는 적외선 영상을 보며 1 차 목표물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1 차 목표물이 이미 파괴되었을 경우 슬램-ER 은 데이터링크를 통해 미사일이 멀리 떨어진 다른 목표물을 향하도록 재설정 할 수 있다.

슬램-ER 의 제어 시스템은 다른 종류의 원거리 유도무기와 비교해 몇 가지 중요한 전술상의 이점이 있다. 타격 직전 목표물의 모습을 육안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목표물을 확인하고 부수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초기 설정 목표물의 일부가 이미 파괴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2 차 조준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작전 성공여부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미사일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소요되는 반면에 시간에 민감한 조준포인트의 지속 시간도 역시 몇 초로 줄어들었다.

고객:

미 해군이 비축해놓고 있는 600 여기 이상의 슬램 미사일이 슬램-ER 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대한민국은 보잉 F-15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슬램-ER 을 구입했으며, 슬램-ER 은 전세계 여러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제원:

길이	172 인치 (436.9 cm)
지름	13.5 인치 (34.3 cm)
날개 길이	85.9 인치 (218.2 cm)
무게	1,400 파운드 (635 kg)
사정거리	150 해리 이상
추진 방식	공기 흡입식 터보제트 엔진
항법장치	GPS
데이터링크	신형 무기 데이터 링크 (Advanced Weapon Data Link)
유도 방식	링 레이저 자이로 (Ring Laser Gyro) 이미징 적외선 유도 방식 (Imaging Infra-Red Seeker) 자동 목표 획득 이미지 매칭 시스템 (Automatic Target Acquisition image matching system)

현재 사용 플랫폼	F/A-18C/D/E/F 호넷 / 슈퍼 호넷 P-3C 오리온 S-3B 바이킹 F-15 이글
------------------	---

향후 사용 가능 플랫폼	F-16 팰콘 F-22 랩터 F-35 JSF P-8A 포세이돈 EA-18G AV-8B 해리어 F-111 нім로드 Fokker 50 F-27 B-1 / B-2 / B-52
---------------------	---

토네이도
재규어
유로파이터
MIG-29
CP-140 오로라

배경:

보잉은 1995년 미 해군이 발주한 9,940만 달러 규모의 슬램-ER 설계, 제작, 개발 프로그램을 수주했다.

슬램-ER은 1997년 3월 18일 첫 비행을 했고, 그 이후 총 13번의 성공적인 개발/운영 테스트를 거쳤다.

슬램-ER은 1999년 여름 조기 운용 능력 테스트를 받았고, 2000년 3월 확인 시험이 완료됐다. 전면 생산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

Contact:

Katie Kelly
Global Strike Weapons Programs
Office: +1 314-232-3947
Mobile: +1 314-288-4619
kathleen.a.kelly@boeing.com

October 2015